팝송으로 배우는 재미있는 영어

강사 김성민

저는 2년째 <팝송으로 배우는 재미있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한 강의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져 18명이 되었네요.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들과, 팝송이나 찬송가를 유튜브로 같이 보고 듣고, 영어가사 설명과 서양문화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지요.

이 강의는 세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요.

* 즐기자 - Enjoy!

무엇이던 즐기면서 해야, 잘 할 수 있지요. 배움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지요. 노력하는 자는 타고난 자를 못 당하고, 타고난 자는 즐기는 자를 못 따른다고 하지요.

* 이해하자 - Understand!

영어를 배우면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은 배우고자 합니다. 한국은 패션/클래식음악/스포츠/엔터테인먼트에서는 많이 서양화되고 잘 하는데, 논리적 사고방식, 문화/예술/매너 등은 좀 더 배워야한다는 생각입니다.

* 생각하자 - Think!

팝송/가스펠 송을 배우면서, 거기에 얽힌 사연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지요. 귀에 익은 팝송의 한국 가사내용이 원곡 가사내용과는 사뭇 다른 경우가 있지요.

한 예가, 1967년도의 히트 곡, 탐 죤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입니다. 가수 조영남이 이 노래를 <고향의 푸른 잔디>로 번안해서 불렀는데, 가사내용이 타향살이가 어려워 고향과 부모생각이 난다는 것이지만, 원곡 가사내용은 사형수의 마지막 꿈에 대한 것이지요.  새벽녘 사형집행 전, 사형수는 꿈을 꿉니다 - 자기가 죽어서 고향의 푸른 잔디밑에 묻히고, 그 때 부모와 사랑하는 애인 메리가 와서 자신을 맞이한다는 - 슬픈 사연의 노래이지요.

평생교육원의 강의가 기쁜 것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장이 아니라, 강사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되고, 서로 서로 대화하고 (communicate), 알고 (know), 주 안의 사랑 (love)을 실천하는 장이기 때문이지요.

클래스 분들이 서로 배려하고,  커피/쿠키/egg tarts 등을 서로 경쟁적으로 준비해서 (ㅎㅎ) 나누고, 제가 모르는 좋은 곡/가수 등도 알려주며, 격려하는 것은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Peter Hollens와 Home Free 아카펠라 그룹이 부른 Amazing Grace을 추천받았는데,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영어와 한국어 번역 자막을 넣는 방법을 배운 것도 이 강의 덕분이지요.

강의의 또 하나의 기쁨은, 음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런즉너희가먹든지마시든지무엇을하든지모든일을하나님의영광을위하여하라

**Whether therefore ye eat, or drink, or whatsoever ye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고린도전서 **10:31)**

이런 기회를 주신 지구촌교회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